

**오리사육량  
통계 협조요청**

국내 오리사육량을 조사하기 위한 업무가 강화된다. 본회는 지난 14일 각 부화장 및 계열화 사업체에 협조공문을 송달하고 오리사육량 기초조사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협조공문에서 국내 산지 오리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오리사육량과 소비동향 등에 대한 통계 조사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내 오리업은 이와 같은 기초조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협회가 추진해야 될 고유의 기능을 추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회는 이와 같은 기초조

사를 위해 매월 초 육용오리 사육동향 및 새끼오리 생산동향, 오리고기 소비동향 등을 분석하여 대정부 건의 및 가격안정, 소비촉진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끼오리를 생산하는 부화장 및 계열화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의 이 같은 기초조사는 부화장의 경우 산란오리 사육량과 월 새끼오리 생산량이며 도축계열화 업체의 경우 월 새끼오리 입식량과 육용오리 도축량 등이다.

**오리 민간비축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보고**

본회는 오리민간수매비축 사업추진을 위한 대상자를 지난 3일 농림부에 제출했다. 대상자 추천은 지난 7월초 오리수매비축을 희망한 사업자를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된 사업자는 전남의 화인코리아, 대승

농산, 다솔영농조합법인, 경기도의 양평산오리, 풍농식품, 전북의 혜성농산, 부산의 세원식품 등이다. 당초 사업추진을 희망한 부성유통은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삼성농장은 가공업체가 아니어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육계 계열화업체  
오리사업참여  
진정에 대한 회신**

한편 본회가 추천한 전남지역의 대승농산의 경우 가공업체가 아니어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농림부의 의견에 따라 전남에서 추가로 사업을 신청한 민영농산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변경을 지난 6일 요청했다.

농림부는 지난 8월 31일 본회가 지난 7월9일 육계계열화업체의 오리사업참여를 반대한 진정서 제출과 관련한 회신을 보내왔다. 단지 육계협회는 귀협회 주장과 같이 육계의 생산 도계 가공 판매 등 계열화를 주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오리사업 참여보다는 육계사업에 적극 노력이도록 하고 귀회와 협의하여 오리와 육계 양 산업이 다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회신에서 농림부는 육계계열화의 오리사업진출 반대 진정에 대하여는 우리부로서는 자율경쟁체제하에서 육계계열화업체에 대하여 오리사업 진출을 규제하기 어려운 실

**새끼오리 가격  
10월부터 6백원  
으로 인상 결의**

광주전남도지회

광주전남도지회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새끼오리가격을 오는 10월2일부터 6백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부화장들의 새끼오리 가격인상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나 현재 육용오리 가격이 계속해서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화장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유, 유통업계의 의견

에 따라 이와 같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이사회는 지금 당장 새끼오리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단지 추석이 지난 시기에는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사유, 유통업계의 의견에 따라 10월초는 추석인 관계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회원사 및 업계동향  
 명예퇴임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별도의 이사회  
 개최 없이 새끼오리 가격을 6백원  
 으로 인상기로 결의됐다.

본회 한상룡이사가 지난 8월 30  
 일 권선중학교 교정에서 명예퇴임  
 식을 갖고 23년간 재직해온 교직에  
 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 한상룡이  
 사는 교직에서 물러나므로서 이제  
 부터 오리업에 전념하게 됐다며 앞  
 으로 오리업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부산지회장  
 부친상

본회 이상길 부산경남지회 지회  
 장이 지난 10일 부친상을 당했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 고견사 인근산  
 에서 12일 개최된 장례식에는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고  
 인의 명복을 빌었다.

장규호 전회장  
 현대사료 중부지역  
 특약점 개설

본회 장규호 초대회장이 현대사  
 료 중부지역 특약점을 개설했다.  
 충북 음성 농장에 주 사무실을 개  
 설한 장규호 전회장은 현대사료 특  
 약점을 통해 이 지역 오리사육농가  
 들과 더욱 많은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중 회장 부평에  
 오리전문점 개설

본회 김규중회장은 지난 21일 인  
 천 부평시에 오리고기 전문점 '압  
 구정52'를 개설하고 개업식을 가졌  
 다. 이날 개업식에는 농림부 및 업  
 계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발전을  
 지원했다. 부평구청 인근에 개설한  
 압구정52는 매장규모 100여평에 오  
 리구이, 오리탕, 오리훈제 등을 주  
 메뉴로 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52는 일산에서 오리  
 고기 전문점 다물유황오리를 운영  
 하고 있는 소민영씨와 동업형식의

오리간염백신  
문제 등 협의

로 개설하여 시행착오 없이 신선한  
오리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  
다는 방침이어서 이지역 오리고기

소비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지회(지회장 민철기)는 지난  
26일 정기 월례회의를 열어 소독약  
배분과 관련된 문제와 오리간염백  
신의 투약문제, 향후 오리가격 전  
망 등을 협의했다.

적으로 백신을 투약하여 공급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  
을 모으고 이를 위해 중앙회 차원  
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지회원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월  
례회의는 현재 오리업계의 불황이  
11월 들어 다소 회복될 것이란 의  
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현재 육  
용오리 출하상황이 추석을 전후한  
소비량 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나 입  
식되고 있는 새끼오리 물량이 크게  
줄어든데다 현재 출하되는 오리도  
다소 물량이 남기는 해도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오리 질병예방을 위해 지원  
된 소독약 배분에 있어서는 현재  
충남지회에 배정된 물량이 사육농  
가들의 참여 저조로 상당량의 물량  
이 남아 있어 주변 농가들에게 수  
령을 촉구하는 동시에 9월말까지  
수령치 않는 경우 남는 물량은 기  
수령한 농가에 추가로 배정해 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이 법정  
전염병으로 명문화된 상황에서 사  
육업계의 이 질병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화장에서 일괄